

- 일하는 방식 변화-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수행과 재택근무 등으로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전체 조사대상 중 35%가 ‘있다’ 고 답했다.

○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34.4%) ▲30대(37.7%) ▲40대(36.2%) ▲50대(29.2%) ▲60대 이상(24.9%) 순으로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3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일하는 방식이 변했다는 답변 비율이 낮아졌다.

<표3> 일하는 방식 변화 조사 결과

Base=전체		사례수 (명)	변화 있었다 %	변화 없었다 /해당없다 %	계 %
■ 전 체 ■		(16244)	35.0	65.0	100.0
성별	남자	(11410)	33.0	67.0	100.0
	여자	(4834)	39.7	60.3	100.0
연령	20대 이하	(1682)	34.4	65.6	100.0
	30대	(6146)	37.7	62.3	100.0
	40대	(5080)	36.2	63.8	100.0
	50대	(2681)	29.2	70.8	100.0
	60대 이상	(655)	24.9	75.1	100.0
학력	고졸 이하	(3943)	22.1	77.9	100.0
	대졸	(10449)	39.4	60.6	100.0
	석사 이상	(1852)	37.1	62.9	100.0

□ 변화가 있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 다섯 가지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100%) ▲중·고등학교 교사(100%) ▲초등학교 교사(96.7%) ▲여행상품개발자(96.7%) ▲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93.5%) 등으로 주로 교육·행사·관광 분야 직종이 많았다.

○ 변화가 없거나 해당 없다고 답한 비율이 100%인 직업은 ▲수학 및 통계 연구원 ▲만화가 ▲3D프린팅모델러 ▲패스트푸드 준비원 ▲어부 및 해녀 등이었다.

- 일의 양 -

□ 전체 조사대상에게 근무시간, 고객 수 등 일의 양의 증감을 물었을 때, ‘증가했다’는 답변은 6.5%였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46.3%였다.

○ 학력별로 살펴보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졸 이하’ (54.7%)였고 ‘대졸’ (46.5%), ‘석사 이상’ (27.5%)이 그 뒤를 이었다.

○ 성별로 봤을 때, 일의 양이 ‘감소했다’는 여성 응답자 비율 (52.4%)이 남성(43.7%)보다 더 높았다.

□ 직업별로 코로나19 이후 일의 양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은 ▲음식배달원 (90%) ▲택배원(83.3%) ▲온라인판매원(73.3%) 순이었다.

○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무용가, 여행사무원, 선박객실승무원 등은 일의 양이 줄었다는 답변 비율이 100%에 달했다.

<표4> 일의 양 조사 결과

Base=전체		사례수 (명)	증가했다 %	감소했다 %	변화 없었다/ 해당없다 %	계 %
■ 전 체 ■		(16244)	6.5	46.3	47.2	100.0
성별	남자	(11410)	6.3	43.7	50.0	100.0
	여자	(4834)	7.2	52.4	40.4	100.0
연령	20대 이하	(1682)	7.3	46.6	46.1	100.0
	30대	(6146)	6.9	43.4	49.7	100.0
	40대	(5080)	6.5	47.5	46.0	100.0
	50대	(2681)	5.7	49.1	45.2	100.0
	60대 이상	(655)	5.0	52.7	42.3	100.0
학력	고졸 이하	(3943)	4.7	54.7	40.6	100.0
	대졸	(10449)	6.9	46.5	46.7	100.0
	석사 이상	(1852)	8.5	27.5	64.0	100.0

<표5> 일의 양 ‘증가했다/감소했다’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직업

증가했다	음식배달원(90%), 택배원(83.3%), 온라인판매원(73.3%), 가정의학과 의사(60%), 응급 구조사(60%), 일반행정공무원(54.3%), 성우(53.3%), 로봇공학기술자(50%), 사회복지 관리자(48.4%), 방역원(해충퇴치원 포함)(46.7%)
감소했다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100%), 무용가(100%), 여행사무원(100%), 선박객실승무원(100%), 오락시설 서비스원(100%), 항공기정비원(100%), 약기 제조원 및 조물사(100%), 연극 및 뮤지컬 배우(97.1%), 모델(96.8%), 자연 및 문화해설사(96.7%)

- 직무 내용 변화 -

- 코로나19 이후 수행 직무 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40%, 증가했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 직무 내용 변화는 기존 직업에서 코로나19 이후 새로 수행하는 직무가 추가됐거나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
*예: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가 기존에 없던 비대면 수업 진행 등
- ▲고졸 이하(46.6%) ▲대졸(40.6%) ▲석사 이상(22.7%) 등 학력이 낮을수록 수행 직무 내용이 줄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5개 직업은 ▲중·고등학교교사(73.3%) ▲음식배달원(73.3%) ▲택배원(70%) ▲일반행정공무원(68.6%) ▲가정 의학과 의사(60%) 등이었다.
- 감소했다는 비율은 ▲무용가(100%)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100%) ▲연극 및 뮤지컬 배우(97.1%) ▲모델(96.8%) ▲선박객실승무원 (96.8%) 순이었다.

<표6> 직무 내용 증감 조사 결과





Base=전체		사례수 (명)	증가했다	감소했다	변화 없었다/ 해당없다	계
			%	%	%	%
전체		(16244)	7.7	40.0	52.3	100.0
성별	남자	(11410)	7.2	37.9	54.9	100.0
	여자	(4834)	8.7	45.0	46.3	100.0
연령	20대 이하	(1682)	7.9	41.9	50.2	100.0
	30대	(6146)	7.7	38.6	53.6	100.0
	40대	(5080)	7.9	40.9	51.2	100.0
	50대	(2681)	7.3	38.7	54.0	100.0
	60대 이상	(655)	5.6	46.9	47.5	100.0
학력	고졸 이하	(3943)	4.8	46.6	48.6	100.0
	대졸	(10449)	8.3	40.6	51.1	100.0
	석사 이상	(1852)	10.1	22.7	67.2	100.0

- 해석 -

- 최기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무수행에서의 대면 필요성과 생활의 필수요소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 “사무직, 기술 및 기능직 보다 직무수행에서 대면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직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가운데, 서비스직 내에서도 생활의 필수요소인 의식(衣食) 및 의료보건 관련직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여행, 문화와 같은 비필수 관련직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하였다”라고 해석했다.
- 이어 “코로나로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감과 수입이 줄고 있는 직업 종사자들에게 소득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직자의 고용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 한편, 상세 조사 결과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시 다운로드 링크(본 링크는 엠바고 이후 삭제될 예정입니다)

- <http://keis.or.kr/site/main/21.5.20.zip>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최기성 연구위원(☎ 043-870-82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